

<2017년 3월 5일 주일말씀>

<실천>은 ‘실체’를 만들고 ‘신비’를 창조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 ‘사탄과 악’이 없어진다

본 문 요한계시록 20장 1-6절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의 평강과
성령님의 뜨거운 사랑과
말씀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 지난주에는 3.16을 앞두고 ‘때와 시간’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 첫 번째로 **시간이 많아도 쓰다 보면 짧다**고 했습니다.

고로 한눈팔지 말고 경주하듯 실천하고,
목적을 두고 빛을 잡듯 실천하라고 했습니다.

▶ 두 번째로

하나님의 때는 맞고 안 맞고 그렇지 않고, 다 맞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시록에 나온 ‘10일의 환난’을 확대하여
시대 보낸 자가 시대의 젖값을 감당한 <10년>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 2008년 시대 보낸 자가 재판을 받은 기간 **<1년>**
-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휴거 준비 기간 **<전 3년>**

-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휴거 단장 기간 <후 3년>
- 2015년 3월 16일 휴거 잔치 이후로 <3년>은
성삼위께 휴거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기간입니다.
- 우리는 <이 마지막 3년 중의 1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은 성삼위께 휴거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면서,
개인·가정·민족·세계의 죄를 청산하면서,
이때가 얼마나 중한지 깨닫고 빛을 잡듯 실천하여 얻는 기간입니다.

- ◎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실천이 중요한 때’ 입니다.
<말>보다 <실천>입니다.

정~말로 <실천>해야 정~말로 <변화>되고 <차원>을 높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모두 다 얻을 수 있습니다!

2017년 휴거 잔치를 앞두고,
정~말 <실천>함으로 준비하기를 축원합니다.

- ◎ 그래서 오늘도 ‘실천’ 에 대해 말씀하겠습니다.
주제는 ‘<실천>은 <신비>를 창조한다.’ 입니다.

<말씀 시작>

- ◆ 사람의 육신이 <실천>하면, ‘실체’ 가 생깁니다.
고로 ‘사탄도 굴복’ 합니다.
- ◆ 방의 천장에서 물이 새면, 물이 안 새도록 막는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물이 안 새니다.
이와 같이 <실천>하면, 사탄도 끝납니다.

- ◆ 밭에 잡초와 가라지가 나면, 뽑으면 없어집니다.

<사탄>도 ‘잡초’ 나 ‘가라지’ 와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 끝납니다.

- ◆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자들의 세계>는 ‘빛의 세계’ 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자들의 세계>는 ‘어둠’ 입니다.

사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고로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빛의 세계>에 못 들어옵니다.

고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 하면 ‘사탄’ 도 끝납니다.

- ◆ 하나님의 마지막 1000년 역사 때에
하늘 신부들은 <휴거>로 ‘창조 목적’ 을 이루었지만,
<휴거된 자들>이 ‘사탄에게 미혹’ 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음으로 인해
<빛>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 ◆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유혹을 받고 타락되었습니다.
왜 사탄의 유혹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 사탄을 멸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빛의 세계>에 속해 있어야 됩니다.

천년왕국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이를 실천하면,
사탄이 옥에 갇힌 바가 됩니다.

- ◆ 속이는 자들은 상대가 모르니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다 상대가 속이는 것을 알게 되면 일체 끊어 버리니,
이것이 곧 ‘속이는 자들이 갇힌 것’ 이 됩니다.

사탄도 그러합니다.

말씀을 실천하면, 사탄의 유혹을 받지 않고 일체 끊어 버리니
이것이 곧 ‘사탄을 가두는 것’ 이 됩니다.

- ◆ 잡초와 엉성퀴가 무성한 들판을 개발하면
〈새로운 세계〉가 되어 ‘옛것’ 이 없어집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
〈새롭게 거듭난 자〉가 되어 ‘사탄’ 도 사라집니다.

- ◆ 〈더러운 물〉을 ‘정수’ 하면 〈더러운 것〉이 쪼개져 없어지듯이,
〈선〉을 ‘실천’ 하면 〈불의〉는 쪼개지고 분리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메시아〉를 믿고 〈그 말씀〉을 실천하면,
〈사탄〉도 쪼개져 없어지고 〈불의〉도 사라집니다.

- ◆ 〈하나님의 뜻을 두고 좋은 것〉을 위해 행하면,
〈죄〉와 〈더러운 것들〉과 〈나쁜 것들〉과 〈사탄 귀신〉은 사라집니다.

- ◆ 〈호두의 껍데기〉를 깨서 버리면 ‘알맹이’ 만 남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 〈사탄과 악〉은 없어집니다.

- ◆ 방이나 거실이나 정원의 <쓰레기를 치우고 없애는 실천>을 안 하면, 쓰레기가 평생 그 자리에 있습니다.

<사탄>도 ‘쓰레기’ 이고, <악>도 <죄>도 ‘쓰레기’ 입니다.

절대 <말씀을 실천>해야 없어집니다.

- ◆ 시계의 초침, 분침, 시침이 움직이면
확~ 표가 나게 움직임이 보이지요?

이와 같이 실천하면, ‘실천’ 과 동시에

표가 나게 ‘원하는 것들’ 이 이루어져 ‘실체’ 가 됩니다.

- ◆ <실천>하여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 실체를 얻는 맛’ 을 보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쉬었다가>

- ◆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를 안 믿어도
실천하면 실천하는 만큼 얻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영원한 세계’ 와 ‘하나님’ 과는 상관없게 됩니다.

- ◆ 실천하되,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께서 보낸 자를 통해 구상해 준 것을 실천해야
<영원한 세계>로 연결되어 ‘영원히 존재’ 하게 됩니다.

- ◆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실천해야
<하나님과 주와 연결>되어서 ‘축복’ 해 주십니다.

- ◆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서 삼위와 대화하며 실천하기입니다.

선생도 새벽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이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만일 이 새벽에 실천하지 않고 잠을 자고 있으면,

하나님과 성령님이 주시는 잠언과 말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주셨어도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기록하는 실천을 안 하면,

백지 위에 자동으로 말씀이 써지겠습니까?

- ◆ 실천해야 얻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실천해야 하나님 안에서 얻습니다.

- ◆ 실천해야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실천해야 영원히 존재합니다.

- ◆ <실천의 보람>입니다.

저마다 놀지 말고 실천하되,

하나님과 주 안에서 실천함으로 하나님과 주와 일체 되어

<육이 실천한 것>으로 인해 <영>에게 영원히 남게 해야 됩니다.

- ◆ <하나님과 성령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것>을 실천하도록

하나님과 성령과 대화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신의 구상>을 받고 월명동 자연성전을 만들듯 실천해야 됩니다.

- ◆ <자기 구상과 생각>을 실천해 봤자,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도 주도 알아주지를 않습니다.

항상 <절대 하나님의 뜻>과 연관시켜서
<하나님과 일체 된 것>을 실천하기입니다.

- ◆ 밥을 먹듯이, 옷을 입듯이,
모두 하나님과 성령과 주를 위해서 실천하기입니다.

그러면 모두 ‘하나님과 성령과 주의 몸이 되어 사는 자’가 됩니다.

이런 자들은

그 <영>이 ‘영원한 세계’에 가서 ‘영원히 존재’하게 됩니다.

- ◆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는 열심히 실천하며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주를 위한 실천’은 못 하고 삽니다.
고로 ‘육’으로 끝나고 ‘영’은 보장을 못 받고 끝납니다.

- ◆ 이왕 인생 사는 것인데,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면
<자기 희망>도 이루며 살게 되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와 같이 살게 되니
<육신>도 ‘인간으로서 최고 희망의 삶’을 살고,
육신이 죽은 후에 <영>은 ‘천국’에서 영원히 존재하게 됩니다.

<잠시 쉬었다가> 바로 위의 내용과 연결된 사연

- ◆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메뚜기’를 잡아서 방에 놓고,
풀도 주고 상추도 줬더니 살았습니다.

<추위>는 피해서 살았는데,

때가 되어 풀도 상추도 없어지니 <먹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사과 껍질’ 을 주어 먹게 했습니다.

메뚜기는 ‘사과 껍질’ 은 안 먹었는데,
겨울이라서 더 이상 ‘풀’ 이 없으니
〈체질〉을 바꾸게 하지 않으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사과 껍질’ 을 주며 체질을 바꾸게 해 주었고,
방도 추우니 이불 속에 넣고 따뜻하게 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밖에 있는 메뚜기보다 ‘세 달’ 더 살았습니다.

며칠 지나니 ‘밥을 주고 따뜻하게 해 주는 나’ 를 알아보고,
때가 되면 내게 기어 왔습니다.

어느 때는 내가 글을 쓰고 있으면, 내 손등에 앉아 있기도 했습니다.

◆ 하나님 앞에 ‘메뚜기 같은 인생들’ 입니다.

〈밖에 있는 메뚜기〉는 겨울에 눈이 와서 쌓이니,
먹을 것이 없어서 죽고 추위에 얼어 죽었습니다.

〈방에 갇다 놓은 메뚜기〉는 겨울철에 보호를 받으며,
먹을 것도 추위도 모르고 오래 살았습니다.

이와 같이 인생들도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하나님 주관권에서 살면,
〈방에 갇다 놓고 살리는 메뚜기〉같이
그 육신도 영도 확~ 표가 나게 보호받고 사랑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차원의 세계〉까지 가서 살게 됩니다.

◆ 때가 되면, ‘하찮은 곤충’ 도
차원 높여 ‘주관권’ 을 옮겨야 ‘생명’ 이 오래 존재합니다.

사람도 그러합니다.

시대의 때가 되면

<구약>에서 <신약>으로 차원 높여 주권을 옮기고,
또 <신약>에서 <하나님이 새롭게 역사를 펴는 이상세계, 성약>으로
차원 높여 주권을 옮겨야 ‘신앙’ 이 삽니다.

◆ <새 역사>는

마치 메뚜기가 겨울이 오기 전에 밖에서 방으로 옮겨 오는 것같이
<이상세계>입니다.

고로 <영>이 살아서 존재합니다.

또한 <새 역사 이상세계>로 오면,
마치 <풀>을 먹던 곤충이 <사람이 먹는 과일>을 먹듯이
<구시대 인간 차원의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 차원의 절대적 진리의 새 양식>을 먹고
온전히 실천하며 ‘뜻’ 을 이루며 살게 됩니다.

◆ 어느 날 메뚜기를 보니, 고속 열차같이 크고 길어 보였습니다.

이를 보고 하나님은

“이같이 크고 긴 성전을 줄 테니, 기도하여라.” 하셨습니다.

그 메뚜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실 뜻’** 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 계시와 같이 **‘크고 웅장한 멋진 성전’** 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곤충>을 가지고도 이같이 귀히 행하시는데,
<사람>은 얼마나 귀히 여기고 사랑하면서 행하시겠습니까?

◆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귀히 여기고 사랑하여

<새 역사 이상세계>로 불러왔습니다.

여기서 ‘이상’을 누리며 살아야
자기도, 하나님도, 주도 ‘보람’이고 ‘만족’입니다.

모두 하나님 주관권 안에서
하나님과 성령과 주와 일체 되어 <실천>함으로
<이상의 실체>를 얻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

◎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 <실천>은 ‘신비’를 창조합니다.

만물들도 살아서 실천하니 꽃을 피우고 열매를 열고,
고구마나 감자같이 뿌리에서도 결실하여 <신비>를 창조합니다.

◆ 만물들도 ‘살아서 실천’하여 <실체>를 얻고 <신비>를 창조하는데,
사람이 실천하지 않는다면 부딪히고 밝히게 됩니다.

- ◆ <실천>은 ‘실체’를 만듭니다.
- <실천>은 ‘사탄과 악’을 물리칩니다.
- <실천>은 ‘신비’를 창조합니다.
- <실천>은 ‘축복의 키’입니다.

◆ 모두, 생각도 마음도 행실도 영도 ‘살아서 실천하기’ 바랍니다.

섭리사 극적인 10년의 기간 중 <마지막 남은 1년>,
그 안에서 <휴거의 잔치>를 앞둔 이때,

하나님 안에 살아서 담대히 실천함으로
<실체>를 만들고 <신비>를 창조하고,
<사탄과 악>을 없애고, <휴거의 완벽한 보장>을 받고,
<영원한 축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